



우리의  
家章

#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沈宜洛  
編輯人：沈載烈(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非賣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 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 十二世祖 京畿監司公 諱：演(휘：연) 墓碣銘 下



▶ 監司公 諱 演 墓所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선영하

우리 고을이 생긴 이후 이러한 목사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어진 관리가 있어 은혜로운 정사를 베풀면 좋은 세월이 될 것이고 이제 공의 덕망이 우리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이니 어찌 가히 잊겠는가.

공이 떠나게 되니 온 고을 사람들이 울부짖고 드디어 동비(銅碑)를 관도에 세우고 거리마다 돌을 깎아 세워 송덕을 하였으며 나중에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심히 슬피 울며 바다를 넘어와서 부조를 하고 건너갔다. 경진(1640)년에 당상관인 비변사(備邊使)가 되어 조정으로 돌아오게 되고 특별히 한성부 右尹이 되었으니 실로 탐라(耽羅-지금의 제주도)에서의 공적을 가상히 여긴 특별한 은전(恩典)이다.

辛巳(1641)년에 세 번 승정원 도승지가 되었다가 다시 右尹이 되고 또다시 서도(西都 : 평양) 순찰사를 지낸 다음 병조참판이 되고 사간원 대사간(大司諫)을 지냈다. 임오(1642)년 3월에 평안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9월에 서갈(西

囑 : 서쪽의 공갈이라는 뜻으로 1642년 선천부사 이규가 밀무역을 하다가 청나라에 붙들려 공에게 화가 되었음)로 체포되어 부하관리들과 봉황성(鳳凰城 : 청나라의 궁성 이름)에 들어가서 일을 다 처리하고 귀환하니 조정에서 종사자의 말을 듣고 문외(門外 : 문 밖이란 뜻으로 관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四大門밖으로 내쫓았음)에 내쳤다가 일년 뒤에 경기도 관찰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甲申(1644)년에 함경도 관찰사로 전근되었는데 공이 개탄(慨嘆)하면서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하려고 북문을 막고 급한 일을 대비하고자 하였으며 은(銀) 一千五百 냥으로 백성들의 부역을 면제하게 하고 관곡을 풀어주어 주린 백성을 구휼하니 다스린 행적이 높이 소문나서 조정으로부터 말 한 필을 하사 받았다. 평소에 성을 수축하고 병기를 수선하며 학업을 일으켜 영재를 육성하니 여러 방면으로 강구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나 포부를 미처 반도 펴지 못하고 병에 걸렸는데 병술(1646)년 봄에 더욱 심해져서 퇴직할 것을 간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일어나지 못했다. 북방민들이 호곡(呼哭)하면서 서울로 운구(運柩)하고 도경계의 안변(安邊) 땅에 비석을 세웠다. 이해 5월 22일 용인의 선영인 산의골(山義谷) 곤좌(坤坐 : 동북간향)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공의 첫 부인은 海州 吳氏이니 도정 윤해(都正 允諧)의 딸이다. 어질고 부덕이 있어서 墓表에 실렸으며 정부인에 추증되었다. 이 분이 서견(瑞肩)을 낳았으니 진사시에 합

격하고 현재의 관직이 사재감직장(司宰監直長)이다. 둘째 부인은 종실인 좌랑 사민(師閔)의 딸로서 정부인에 봉했고 예의법절이 현숙하고 삼가서 의리가 창달하여 본받을 만 하였다. 처음 시집왔을 때 직장이 나이 아직 어려서 친자 식처럼 품고 다니니 남들이 그 몸에서 낳지 않음을 알지 못하였다. 24년을 알뜰히 받들고 공경하며 뜻에 따라 처사하여 항상 간격이 없었으니 법도가 기록할만하였다.

직장이 우리 집 데릴사위가 되었으니 우리 선친인 목사 공께서 공과 동갑이고 서로 깊히 잘 아는 고로 그 딸로서 공의 자부를 삼았다. 三男四女를 두었으니 아직 다들 어린 아들들은 득원(得元) 윤 원(胤元) 삼 원(三元)이다.

공은 자질이 크고 준수하며 도량이 펍 깊어서 바위 같은 인상이어서 바라보면 두려운 면이 있었다. 화평한 안색이 경애할 만하고 정성을 기울여 충효하니 명분과 절개가 같고 닦은 듯하며 일에 따라 행동하고 그 밖은 생각지 않았다. 위엄을 세우고자 아니하고 영리는 돌보지 않았다. 대각(臺閣)에 있을 때는 구태여 시간 따라 좋은 일에만 어울리지 않고 정상에 지나치는 행동은 하지 않으며 핵심(核心)할 만한 의논으로 명분을 삼고 오직 강상(綱常)을 지키며 풍채를 유지하고 경연(經筵)에 들어가서는 강론을 잘 하여 어질게 보필하고 세자공의 교화에 지성껏 보도(輔導)하며 심지어 임금의 앞에서도 죽고 사는 것으로써 충언을 바꾸지 아니했다. 영남의 군병 때에도 비록 성패 운이 있어 충성을 다하지 못했으나 67성 천리의 먼 곳에서 변란을 들은 7일만에 兵甲을 챙겨서 전장으로 달려오고 다시 의기를 북돋우며 두 번째 분투하니 이것이 공의 위대한 면모이다. 공은 평소 참판공을 모실 때 병이 1년을 끌었는데 밤낮으로 조금도 게으르지 않으니 참판공께서 지극한 효도라고 하였다. 몸이 귀하게된 후에도 항상 작록(爵祿)으로 인하여 잘 봉양하지 못하였다고 종신토록 마음 아파했다. →2면에 계속

## 2008年度 秋季時享日表

世	諱(이름)	陽曆	陰曆	曜日	住 所 地
始祖	文林郎公(휘 : 洪孚)	10. 7	9. 9	火	青松郡 청송읍 덕리 보광산
	中臺山所				青松邑 부곡리 중대산
二	閣門祗候公(휘 : 淵)	10. 9	9. 11	木	益山市 함열읍 남당리 남당산
二	奉翊大夫公(휘 : 晟)	10. 23	9. 25	木	鐵原郡 동송읍 양지리(설단)
三	靑華府院君(휘 : 龍)	10. 11	9. 13	土	安城市 당왕동 산소
三	靑華府院君 配位 金氏				安城市 도기동 산소
三	判書公(휘 : 漣)	10. 23	9. 25	木	鐵原郡 동송읍 양지리(설단)
三	上護軍公(휘 : 卿)				
四	靑城伯(휘 : 德符)	10. 13	9. 15	月	漣川郡 미산면 아미리 산소
四	靑성백 配位 淸州 宋氏	10. 15	9. 17	水	淸州市 흥덕구 분평동 산소
五	都摠制公(휘 : 仁鳳)	10. 15	9. 17	水	淸州市 흥덕구 분평동 산소
五	判事公(휘 : 義龜)	11. 12	10. 15	水	全南 보성군 복내면 장천리
五	知成主事公(휘 : 繼年)	11. 12	10. 15	水	光州市 광산구 송치동 용진산
五	지성주사공 配位 崔氏	11. 13	10. 16	木	全南 장성군 황용면 외곡리
五	仁壽府尹公(휘 : 澄)	10. 15	9. 17	水	全北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五	安孝公(휘 : 溫)	9. 14	8. 15	秋夕	水原市 영통구 이의동산의실

世	諱(이름)	陽曆	陰曆	曜日	住 所 地
五	三韓國大夫人 順興安氏	10. 12	9. 14	日	安城市 금광면 오흥리 능말
五	淸원군(휘 : 淙)	11. 5	10. 8	水	坡州市 문산읍 사목리
五	현령공(휘 : 天柱)	10. 26	9月末週	日	安東市 풍천면 인금리
五	돈제공(휘 : 天湜)	11. 9	10. 12	日	慶南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六	평산부사공(휘 : 灑)	10. 30	10. 2	木	原州 단계동 사천마을(설단)
六	좌랑 공(휘 : 溝)	11. 12	10. 15	水	全南 보성군 복내면 장천리
六	애암 공(휘 : 涓)	11. 14	10. 17	金	光州 광산구 감적동 가정산
六	良惠公(휘 : 石雋)	10. 18	9. 20	土	龍仁市 포곡면 가실리
六	領中樞公(휘 : 澹)	10. 29	10. 1	水	水原市 영통구 이의동
六	恭肅公(휘 : 澮)	9. 14	8. 15	秋夕	坡州市 월농면 영태리 산소
六	靖夷公(휘 : 決)	11. 2	10월첫째	日	龍仁市 양성면
六	증참판공(휘 : 孝鼎)	11. 2	10. 5	日	靑松郡 파천면 용덕리(설단)
六	연일공(휘 : 自鼎)	11. 9	10월둘째	日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康主簿公時享(恭肅公養父) 陽曆10월19일(陰曆: 9.21일) 日曜日  
(每年 陰曆 9월21일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묘소).

외조모를 모시는데 동생과 함께 지극히 정성스럽고 공경하였다. 관찰사께서는 봉우간에도 그 신의로써 사랑하고 백성을 교도(敎導)하는데도 마침내 명망을 드날렸다. 여동생이 하나 있었으나 일찍 죽어 그 생질들을 친자식 같이 보살피니 조부 승지공께서 몹시 사랑하시고 우대하였으나 공에게는 여동생과는 달리하였고 공도 안으로는 이와 같은 구비함이 있었다. 학사의 가장(家狀)이 이와 같으나 이는 학사(學士 : 심대부 가장을 쓴 사람)의 말이 아니고 곧 여론으로 이어지는 여럿의 말이나 내가 오히려 시원하지 못하고 가만히 공을 돌이켜 볼 때 공께서 후덕을 베풀

핀 것은 혼연하게 삼춘(三春 : 춘삼월)의 화기 같고 아량인 즉 절절 넘치는 만경장파이고 그의 능력은 고무 갖춰 더욱 유위(有爲)하고 그의 충성은 위협을 무릅쓰고 능히 그 직책을 다하니 고인 중에서 찾아보아도 그의 짝을 구하기 드물었으니 하물며 아득한 이 세상에서 감탄할 뿐이다. 밝은 세상에서 훌륭한 임금을 만나 스스로 대우를 인정하며 14년 동안 몸소 중책을 치렀으니 정말 진정한 군신(君臣)을 보았도다. 하늘이 짐짓 이런 분을 내시고 갑자기 명을 빼앗아 감은 무슨 까닭일까. 아! 아깝도다. 드디어 명을 지으니 명(銘)에 이르기를.

이 분이 흥문관의 영준(英俊)이 되고,  
이 분이 화려하게 으뜸으로 뽑혔고,  
이 분이 헌납(獻納)으로서 논변의 여진 이고,  
이 분이 二千石의 재량이 넘고,  
이 분이 모범적인 지방관리가 되고,  
이 분이 드러난 큰 덕망가이다.

경신(卿臣)의 다음(중 二품인 참판직)으로 그쳤으나 그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좋은 이름이 영원하도다. 여기에 온전하게 갖추었으니 군자 이곳에 장사를 지냈도다.  
大司成 황 호(黃 廩 <끝>

## 조선 개국공신 沈德符의 삼존불 발견

### 麗末鮮初 불상 중 제작연대 분명한 첫 작품으로 추정

부처는 가름한 얼굴에 은은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앞은 손바닥에서 섬세한 다섯 손가락이 이음매 없이 매끄럽게 뻗어 나와 중생을 다독 거린다. 길쭉한 몸통에 부드러운 옷자락이 부드럽게 휘 감긴 것도 볼 만하다.



조선 개국공신인 심덕부의 의뢰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 삼존불이 발견됐다. 오른쪽 사진은 불상 내부에서 나온 비단으로, 심덕부의 이름이 적혀있다.

조선 개국공신이자 세종대왕의 처조부인 허강(虛江) 심덕부(沈德符 : 1328~1401)의 의뢰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

되는 금동 삼존불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삼존불이 진품일 경우 한국 불교미술사 연구에 새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나온 여말선초(麗末鮮初)의 불상 가운데 제작연대를 특정할 수 있는 작품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 삼존불의 구성

이번 심덕부 삼존불은 청동 감실에 관음보살상(觀音菩薩像) 아미타불상(阿彌陀佛像) 세지보살상(勢至菩薩像) 등 12~15cm 높이의 금동불 세점이 들어 있는 형태다. 올 초 한 개인 소장가가 일본 고미술상에서 구입해 국내에 들여왔다.

이후 국내 연구팀이 불상 밑바닥을 개봉하고 불상 내부에 공양물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청성백(靑城伯) 심덕부가 발원해서 불상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적힌 황색비단이 관음보살상과 아미타불상 내부에서 각각 한장씩 출토됐다. 이 비단은 길이 23cm, 폭 1.5cm이며, 두루마리 형태로 말린 채 불상 내부에 들어 있었다. 청성백은 심덕부가 조선 건국 이듬해인 1393년에 태조에게 받은 칭호다.

#### 미술사적 가치

강우방 전(前) 국립경주박물관장은 진품으로 추정되

며, 보물급 문화재 지정이 논의되어도 과하지 않은 수준이고,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한 유물 이라고 말했다.

첫째 지금까지 나온 여말선초의 불상은 제작연대를 확정할 수 있는 작품이 거의 없었다. 이번 심덕부 삼존불이 진품이라면 비단에 적힌 발원자의 직함(청성백)을 근거로 심덕부가 청성백에 오른 1393년에서 그가 사망한 1401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제작연대를 좁힐 수 있다. 앞으로 한국 불교미술사를 연구할 때 이 유물을 지표로 삼아 전후(前後)의 유물을 배열해 제작연대를 따질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 이번 삼존불은 얼굴과 몸이 길고 유연하며 어깨가 좁고 목이 잘록하다. 한국 불상이 대체로 어깨가 넓고 두툼하며 머리통이 둥글고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강 전 관장은 전통과 전법이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왕조 교체기 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미학적 실험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직경 1~2mm 안팎이 가느다란 손가락을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이 한 번에 주조해낸 점, 순도 높은 금으로 고르게 금동을 입힌 점 등으로 미루어 당대 최고의 장인이 정성을 쏟아 제작한 역작으로 보인다고 했다.

#### 학계의 반응

학계는 대체적으로 이번 삼존불에 대해 진품으로 추정된다고 반기고 있다. 문화재 보존 전문가인 최명윤 명지대 교수는 개인 소장가의 의뢰를 받아 삼존불을 개봉한 당사자이다. 그는 불상 개봉 당시 불상 밑바닥을 덮은 판에 먼지와 녹이 고르고 두껍게 쌓여 있었고, 용접 부위에도 과거에 개봉한 흔적이 없었다고 했다.

서지학자인 남권희 경북대 교수는 비단의 재질과 필체로 미루어 여말선초의 유물이 확실해 보인다고 하며 불상에 넣는 공양물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후대에 위조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불교미술 전문가인 송은석 삼성미술관 리움 선임연구원은 고려의 전통 양식을 계승한 동시에 전법에서 어긋난 개성적인 표현도 엿보인다고 하며 현재 남아 있는 조선 초의 불상은 10여점 뿐이기 때문에(진품으로 확정될 경우) 상당한 희귀한 유물이며, 조선시대 불상 중 最古의 작품이 된다고 했다.

#### 반대 의견

그러나 반론도 있다. 불교미술 전문가인 문명대동국대 명예교수는 불상의 양식, 비단의 재질과 필체 등이 일반적인 조선 불상과 차이가 있다며 누군가가 훗날에 심덕부의 이름을 빌려서 제작한 근대 작품으로 보인다고 했다.

#### 심덕부는 누구인가?

허강(虛江) 심덕부(沈德符 1328~1401)는 고려 말의 문신으로 이성계 정도전 정몽주 등과 함께 고려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세운 뒤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에 참여했다. 그 공로로 조선 개국(1392년) 이듬해인 1393년 청성백(靑城伯)에 봉해졌다. 조선 창건 후 경복궁과 종묘 건축을 총괄 지휘하기도 했다.

그는 조선 초기의 왕들과 혼연으로 깊게 얽힌 외척이기도 했다. 심덕부의 여섯째 아들 종(宗)은 태조의 사위였다. 다섯째 아들 온(溫 1375~1418)의 부친이었다. 소헌왕후(昭憲王后 1395~1446)의 부친이었다. 심덕부는 1399년 좌의정에 올랐다가 이듬해 고령으로 벼슬을 버리고 물러났다. 이번에 나온 삼존불 유물은 심덕부가 말년에 장인(匠人)을 시켜 제작한 다음 개경(개성) 근처 사찰에 봉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일보에서 전재>

## 大同世譜(庚辰譜) 申請案内



CD롬 2개



2002년도에 발간·배포한 대동세보(경진보)를 아직까지 모시지 못한 집안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전 12권(수권, 자손록 10권, 색인 1권)과 CD롬(대동세보 전 내용과 시조 ~ 4세조 산소 동영상)을 수록하였으며, 모든 한자에 음 표기함
- ◆ 보급가격 : 22만원(CD롬 포함), 별도 구입(CD롬 : 20,000원 / 수권 : 40,000원)
- ◆ 송금구좌 : 농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중회)
- ※ 대금을 송금하신 후 대중회(02-2267-7857, 팩스 : 02-2269-7755)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 ※ 대동세보 편집자료 제출시 족보예약금을 납입하고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청송심씨대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shim.or.kr)에 명단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대동세보 속편(靑松沈氏世考選, 祭享笏記, 宗보축쇄판, 手帖, 鬻지 포함) : 100,000원

## 책자 강매 주의

대중회를 사칭하면서 책자 구입을 강요하는 전화가 많습니다. 책자를 보내오면 대금을 송금하지 말고 즉시 반송하시기 바라며, 다른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대중회에서는

대동세보(경진보 : 22만원)와 대동세보 수권속편(10만원) 외는 보급하는 책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삼익THK주식회사 대표이사
- 영남대 대학원 정치학석사, 명예정치학박사
-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인력위원장
-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위원회 위원
-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 심갑보(三益 THK 株) 부회장의 현장경영학

## 자기개발이 회사 키운다 - 下

이 달의 CEO 패널은 자기개발의 달인으로 통하는 심갑보 삼익THK 대표이사 부회장이자 심 부회장은 30년간 5,000번 강연에 참석했고, 최고위 과정 세 곳을 다녔다. 100명의 패널 중 최장수 CEO이기도 하다. 그가 털어놓는 자기개발의 철학과 효용



직무실에 강연 테이프 3,000개 보관

### 직원들에게 직접 녹화한 강연 틀어줘

심 부회장은 정치학도 출신이다. 영남대 정치학과 재학 중 학보병으로 입대한 그는 정치인에서 정치학자로 궤도를 수정한다. 제대 후 모교 대학원에 진학했고 일년동안 정치학 강사로 모교 강단에도 섰다. 그러다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가업이었던 토건회사에 몸담는다. 일 년 만에 토목 기술사 2급 자격증을 따고, 한때 다른 사람 명의로 건설업을 하기도 했다. 정작 한양대 토목과를 나온 그의 동생은 충북대 교수를 지냈다. 심 부회장은 70년 장인(진우석 명예회장)이 세운 삼익으로 옮겨고 81년에 사장이 된 후 26년째 CEO로 일하고 있다. 포브스코리아 CEO 패널 서베이의 패널 중 최장수 CEO.

유별나게 왕성한 그의 지식 정보 욕구와 지방대를 나온 것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

지방대 출신으로서 실력이 없으면 발붙이기 힘들다. 열심히 자기개발을 했죠. 그 덕에 노사관계와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마다 지방대 출신으로는 내가 유일했어요. 지방대 출신도 열심히 하면 인정받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

고 싶었습니다. 사실 열등감에 시달린 적도 많습니다.

그가 AMP에 탐닉 한 것도 어쩌면 이런 콤플렉스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서울대에서 AMP와 AIP를 이수했지만 그는 서울대 출신으로 소개 될 때면 영남대를 나왔다고 정정한다. 지방대 나온 것을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일은 없습니다. 명문대 출신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기는 했습니다만.

심 부회장이 합류한 70년 삼익은 연간 매출액 1억원 미만의 영세 기업이었다. 지난해 이 회사의 매출액은 1311억원. 60년 창립 이래 노사분규로 조업을 중단한 적이 없다. 노사관계가 원만한 비결로 심 부회장은 모든 정보를 종업원과 공유하는 것을 꼽았다.

한마디로 투명 경영이죠. 회사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직원들을 설득했어요. 삼익은 우리나라 기업에 노사협의회가 생기기 10년 전 노사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덕에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는 걸 차단할 수 있었죠. 97년 노조가 생겼지만 온건한 편이고, 약 400명의 직원 중 노조원은 100명 이내입니다. 노사관계는 사실 CEO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는 80년대 삼익이 처음 감원을 했을 당시의 얘기를 들려줬다. 창업주인 진우석 사장(현 명예회장)은 인사청탁을 해 들어온 사람부터 권고사직 시켰다. 회사 차량도 업무용 승용차 한 대 빼곤 다 팔았다. 전 임직원이 버스로 출퇴근했다. 그러자 종업원들도 구조조정을 수긍했다.

심 부회장은 조인스 인물정보 경영 철학란에 정도경영 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제 정직하지 않으면 못 번다고 단언했다. 단적으로 비자금 없이도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비자금을 직원들도 모르게 조성할 수는 없습니다. 비밀은 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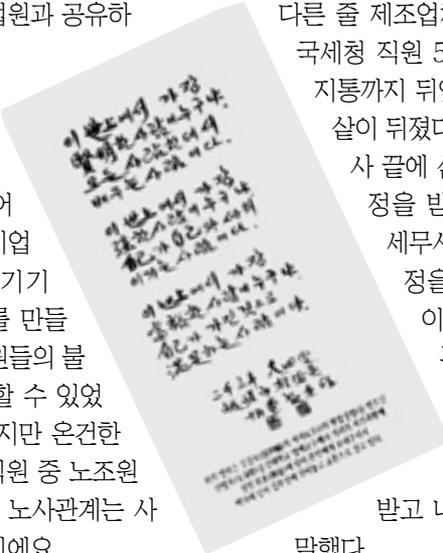
서 새겨 마련이죠. 문제가 터지고, 적어 안에 있다는 걸 깨닫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결국 비자금은 회사 경영에 도움이 안돼요. 물론 비자금 없는 경영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70년대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도 극복해 냈는걸요.

76년 실패를 생산하던 삼익은 전자밥솥, 전자밥통에 진출했다. 2만원짜리 제품에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가 4,000원 붙었다. 대부분의 경쟁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세금을 탈루 했다. 한 임원이 관행을 따르자고 건의했다. 삼익은 그러나 탈세하는 대신 가전 사업에서 철수했다. 5년 동안의 투자를 물거품으로 돌리는 뼈아픈 결정이었다. 이듬해 삼익은 세무사찰을 받았다.

다른 줄 제조업체의 무고로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50명이 들이닥쳤다. 후지통까지 뒤졌고 대표이사 집도 살살이 뒤졌다. 녀 달에 걸친 정밀조사 끝에 삼익은 결국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당시 대구에서 세무사찰을 받고 무혐의 판정을 받은 업체로는 삼익이 유일했다고 한다. 심 부회장은 그때 만일 가전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삼익은 아마 세무사찰을 받고 나서 망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건강 금전 정보관리 잘해야

CEO로 재임한 지 한 세대. CEO가 직업이다시피 한 그에게 젊은 세대들을 위한 조언을 청했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네 가지를 권하고 싶군요. 건강관리, 시간관리, 금전관리 그리고 정보관리입니다.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다른 자원 못지 않게 정보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눈 높이를 한 단계 낮추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중견 기업과 중소기업 가운데도 좋은 회사가 많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회사에 들어가 실력을 연마하세요. 대기업에 들어가 조로(早老)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선 부분적인 트레이닝밖에 못 받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면 영업과 생산을 다 배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행이 장수 비결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심 부회장은 몸으로 웅변하고 있다. 조인스 인물정보의 지인란에 그는 황학수 전 삼성카드 부회장을 적었다. 심 부회장과 학보병 동기인 황 전 부회장은 96년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났고 98년까지 삼성생명 상담역으로 있었다. 심 부회장이 10년 이상 더 현역에서 뛰고 있다. 그는 자신이 경북사대부고 동기 중 유일한 현역이라고 귀띔했다. 회사가 허락한다면 6~7년 더 현역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그는 주말이면 지인들에게 e메일을 띄운다. 2월 3일 띄운 이메일의 주제는 스웨덴의 성(城). 그는 성은 나라마다 고유색을 지니고 있다고 해설했다. 여기에 그는 자신이 수집한 40여 장의 스웨덴 성 사진과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2번 음악 파일을 첨부했다. 만 72세에 음악 파일을 첨부할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노익장이 따로 없다. 차별화하기 위해 음악을 까는 거죠. 99년 전경련 국제경영원 정보전략최고 경영자 과정에 다닐 때 배웠습니다. 당시 최고령이었죠. 젊은 분들 가운데도 그때 배운 것을 활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차별화한 e메일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주변에 인식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는 디지털 카메라 등의 디지털 기기를 손수 다루고 사진도 직접 편집한다. e메일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청바지 차림의 미소년이다. 새뮤얼 울만이 유행했듯이 어쩌면 청춘이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 인지도 모른다.

때로는 스무 살의 청년보다 예순 살의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우리는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어가나니.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3월호 한국의 CEO를 말한다.

이 달의 패널 심갑보 THK 대표이사 부회장 대중회 부회장

<끝>

## 대동세보 수권속편(외 4종) 신청안내

구 분	페이지	가 격	신청부수
1. 대동세보 수권(속편)	1,134	50,000원	( )권
2. 청송심씨세고선(한시집)	448	30,000원	( )권
3. 종보축쇄판(1-50회)	400	20,000원	( )권
4. 제향출기(휴대용)	30	3,000원	( )권
5. 종사수첩(휴대용)	120	3,000원	( )권
6. 뺏 지		1,000원	( )개

▶ 1, 2, 3 세권을 일시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4, 5, 6 세가지 물품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 \* 수령인 주소 및 송금내역

과 명	이 름	집 전 화	
		휴 대 폰	
주 소		우 편 번 호	
송금일자	송 금 인	금 액	송 금 은 행
			( )은행 ( )지점



### 수권속편 질 단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질 단위는 발송비 없음.  
질단위 외에는 발송비 3,000원을 대금에 합산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번지와 동 호수 까지 자세하게 기재, 집 전 화 휴대전화를 꼭 기재요함.  
송금인이 본인이 아니면 반드시 송금인의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보 내 실 곳 ◀

우편번호 100-310 서울 중구 오장동 14-10(찬경회관)  
TEL: 02)2267-7857, 2263-7897 FAX: 02)2269-7755  
\* 송금구좌 농협 084-01-193626(청송심씨대중회)



宗 事 消 息

五世祖 安孝公(諱:溫) 仲秋節祀 奉行

9월 14일(秋夕)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의실 묘소

- 初獻: 行鎮 • 亞獻: 應植 • 終獻: 種福
- 大祝: 相直 • 執禮: 載玉
- 執事: 彦村 載澈 彦善 讚秀

대전 뿌리공원에 조형물 설치

대전 뿌리공원에 우리 문중을 상징하는 조형물(청송심씨의 얼)을 제작하여 9월 25일 설치하였습니다.

1998년 대전광역시 중구청에서 뿌리공원을 조성하여 72개 문중이 각 성씨의 특징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건립하여 지금은 전국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공원을 조성할 때는 큰 성씨들이 대부분 참여하지 않아 뿌리공원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 중 우리 문중의 조형물은 왜 없느냐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전 중구청에서는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장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을 받은 결과 최종 64개 문중이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 5월말까지 부지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6월부터 문중별로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문중의 조형물은 뿌리공원의 중앙부 맨 위쪽 도로변(삼남탑 아래)에 세워져 뿌리공원 전체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조형물의 전면에는 청송심씨 사적비 내용을 새겼으며, 후면에는 가문을 빛낸 분들 심문의 가장 작품 해설 현성금 종회명단을 표시하였습니다.

조형물 건립비용은 전액 현성금으로 충당하였으며 현성금을 납부해 주신 각 종회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뿌리공원 찾아가는 길

- ① 경부고속도로 대전IC를 지나 '비룡분기점'에서 호남고속도로 방향 안영IC
  - ② 호남고속도로 '서대전분기점'에서 경부(대전)고속도로 방향 안영IC
  - ③ 대전고속도로 남대전 IC를 지나 호남고속도로 방향 안영IC
- ※ 안영 IC를 나와 우회전 한 후 다리를 건너 우회전하여 들어감

十世祖 익효공(翼孝公 諱: 綱)에 관한 記聞

이양(李樾)은 공의 처남이다.

공이 이양을 미워하여 살해하고자 하니 士林에서 상소하여 이양을 내쫓았다. 이양은 생각하기를 청양군(靑陽君 휘: 義謙)이 충혜공의 미움을 생질중에서 가장 많이 받아 그 두 손자의 어렸을 때 이름을 보의(報義) 보 겸(報謙)으로 지었으니 李朝에서 전 해 내려온 말이 이와 같았다. 충혜공(忠惠公: 휘, 連源)은 벼슬이 영의정이고 익효공은 또 국구(國舅: 임금의 장인)가 되어父子가 높은 벼슬을 한집에서 하며 명망 높게 살다가 강대(強大)해 지자 익효공은 대정동(大貞洞)에 분거(分居)하였고, 또한 충혜공이 가마타는 것을 금하여 익효공이 어버이를 보러 올 때 반드시 말을 타고 오더니 하루는 술에 취하여 가마를 잘못 타고 오자, 충혜공이 성내어 말하기를 내가 너의 가마타는 것을 금하였으나 네가 타고 왔으니 가마 타는 것이 그렇게 좋으니. 마땅히 너는 말을 타야 할 것이다 하고 타고 다니던 가마를 뜯 앞 마르나무가지에 반나절 걸어 놓았다.

인순왕후(仁順王后)가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내려가자 충혜공이 비로소 걸어놓았던 것을 풀려주니 자손의 미담(美談)으로 전하여 젓고 세상 사람들이 또한 모두 도리에 맞다고 하였다. 이 나무가 가마를 매달은 나무요 뜯 앞 섬돌 위에 있는 몇 아름이나 되는 푸르고 푸르며 높이 솟은 나무로 큰 가지 대여섯개가 옆으로 뜯 가운데로 뻗어 햇빛을 가리고 겨울하늘에 눈이 내린 뒤 바람이 불어 나무가죽이 벗겨져도 줄기의 푸른 잎은 바라봄에 사랑스럽고 지금까지 우뚝 서있으니 우리 집의 곧고 굽은 나무이다.

삼가 살펴보건대 문헌비고(文獻備考)에 말하기를 선조조(宣祖朝) 癸巳年에 임금이 都城에 돌아오니 궁궐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일이 어지러워 태실(太室: 종

묘의 중앙에 있는 큰 방)의 神位를 임시 척신(戚臣) 심연원(沈連源)의 정동 집에 奉安하였다하니, 여기에서 정동이라 말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小公洞가 승(家乘)에 이미 익효공이 있고 공이 정동에 살았다는 글이 있으니 익효공의 집이 충혜공의 집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이때 옥과부군(玉果府君 휘: 掩)이 家統을 이어 나이 31세였으니 비고에 실린 바가 충혜공의 집인 것은 아마도 의심할 것이 없는 것이다.

진신치뢰문(縉紳致爵文). 고관(栗谷 李珣)이 익효공의 제사 지낼 때 지은 글.

기개와 도량이 넓고 깊으며 성품이 진실하고 순진하였네 / 능히 조상의 업을 이어받아 나라를 섬기는 신 하로서 욕되지 않았네 / 이씨 왕조의 기틀을 넓히고 우리왕후를 탄생하였네 / 벼슬은 상하가 분명하고 덕은 타고난 성품을 기렸네 / 특수한 영광이 문에 가득 하였으니 누가 감히 견주리오 / 화려한 것을 싫어하고 소박하였으니 그 만족함을 유지하였네 /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선비의 모범이었네 / 풍성하게 베풀고 보답을 바라지 않았네 / 하늘이 견디기 어려웠으니 계해년은 저물고 / 공은 근심하고 사사로운 고통스러우니 생기지 않음만 못하였네 / 이에 두병마를 불러 오 래가니 난치병이 되었네 / 밖으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정기가 날로 쇠약하였네 / 약이 몸에 맞지 않아 죽어 가니 사람들이 슬프고 괴로워했네 / 왕비가 하늘을 우러러 보고 부르짖었네 / 우리들도 모두 하늘을 우러러 본지 오래였네 / 벼슬이 문중을 크게 이뤘으니 조종에서 정을 많이 받았네 / 이에 변변치 못한 제수로 제사지내오며 성의를 밝히오니 신령이시여 흠향(歆饗: 운감)하옵소서.

- 文化部 -

서브 스리 100회 달성한 마라톤맨 마라톤 풀코스 3시간 이내 완주



▶ 경남 사천노을마라톤 대회 우승 심재덕씨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심재덕(39세 생산지원팀)씨가 42.195km의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이내에 완주

하는 서브 스리 100회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달성한 마라톤맨이 됐다.

심씨는 지난달 30일 경남 사천 노을 마라톤대회에서 2시간 29분 45초의 기록으로 우승하면서 서브 스리 100회를 달성했다. 이 기록은 본인의 풀코스 최고 기록이면서 대회 최고 기록이다. 1995년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대회에서 처음으로 풀코스 도전한 심씨는 2시간 39분 5초의 기록으로 완주, 첫 대회에서 서브 스리 달성의 기쁨을 토했다. 심씨는 지금까지 마라톤 풀코스를 102회 완주했고, 이 가운데 3시간 5분대로 결승선을 통과한 98년 동아마라톤대회 등 2개 대회에서만 3시간을 넘겼다. 심씨는 올해 17개 대회에서 풀코스

를 완주했고 11번 우승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10일 대구 금호강 마라톤대회, 11일 보성녹차마라톤대회, 24일 경기도 이천마라톤대회, 25일 수안보온천마라톤대회 풀코스에서 연이어 우승하는 괴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풀코스만으로 성에 차지 않았던 심씨는 지난 2006년 5월 미국버지니아주에서 열린 160km 산악마라톤대회에서 17시간 40분 45초의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했다. 또한 2005년에는 일본 나가노현에서 열린 100km 고원 울트라대회에서 8시간 4분 34초의 기록으로 우승하는 등 울트라 대회에서도 상을 휩쓸다시피 하고 있다.

폐기능은 다른 사람보다 떨어졌지만 피로회복 속도는 다른 마라톤녀에 비해 빨랐다. 는 심씨는 평일 조깅 7~8km, 주말 산악마라톤 4시간 또는 도로 80km를 달리면서 컨디션 을 유지한다.

심씨는 9월 26일 그리스에서 열리는 246km 울트라마라톤대회, 내년 250km의 사하라사막 울트라마라톤 대회 등에 계속 출전하면서 인간한계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에서 전재 >

뿌리공원 조형물 제막식 행사 안내

- 일시: 2008년 10월 1일(수) 11:30

- 장소: 대전 뿌리공원 현장(삼남탑 아래)

전국 종인들의 많은 참석을바라며, 단체로 참석할 경우에는 대중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사공 천장 후 묘소 전경



천장 고유제

## 고 유 문(告由文)

‘분수리(汾水里) 선영(先塋) 천장(遷葬)에 부쳐 -

무자년(戊子年 2008년) 8월 24일 의정부 영의정 만사 상공(議政府 領議政 晚沙 相公) 할아버님 10대손 명구(明求)는 할아버님과 증의정부 좌찬성 숙천(贈議政府 左贊成 肅川) 할아버님, 증의정부 영의정 감역(贈議政府 領議政 監役) 할아버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선대 분묘를 이 곳 분수리(汾水里) 선영(先塋) 언덕에 옮겨 모시고 삼가 엎드려 아뢰나이다.

무엇보다 相公께서 영면(永眠)에 드신 지 350여년(1)이 지난 오늘 할아버님들과 할머니들의 편안한 잠을 어지럽힌 채, 천장(遷葬)에 이르러만 변변치 못한 후손들은 참으로 아득하기만 하나이다.

과평윤문(坡平尹門)의 느닷없는 소동(騷動)이 시작된 지 어언 250여년(2)이오나 저들의 미혹(迷惑)은 세월을 더해만 가고, 지나치게 지어진 담장으로 만사(晩沙) 할아버님의 영역(靈域)마저 가로막은 그 망극(罔極)함을 어찌 필설(筆舌)로 담을 수 있겠나이까.

굽어보시는 바와 같이 옛 묘역은 1614년 7월 숙천공(肅川公)을 모신 이후, 감역(監役) 만사(晩沙) 할아버님과 열선조(列先祖)들이 차례로 안장(安葬)된 곳으로서 1763년에 이르기까지 150여년을 여하한 시비나 다툼도 없던 안온(安穩)한 우리 고유의 세장지(世葬地) 이었나이다.

그러나 그 해 윤문(尹門)은 실전한 고려조(高麗朝) 문숙공(文肅公) 묘역을 찾는다며 만사상공(晩沙相公) 영역(靈域)의 돈대(墩臺) 아래를 파헤치기에 이르렀고, 일제(日帝) 연간(年間)에 와서는 송조(崇祖)의 기치(旗幟)를 앞세운다 한들 차마 믿기 어려운 봉분(封墳)을 범(犯)하는 일(3)도 서슴치 않았나이다.

- (1) 만사공 이 돌아가신 해가 1662년이므로 올해로 346년이 되는 것임.
- (2) 다툼의 시작이 1763년(영조 39년)이므로 올해로 245년이 되는 것임.
- (3) 천장 발굴조사 과정에서 만사공 의 회곽 모서리가 심하게 훼손된 것이 발견됨

한편 왕조(王朝)의 국기(國基)가 빛을 잃어 망국(亡國)을 맞은 1910년대 후반, 일제의 임야사정(林野査定)에 있어서 매도(賣渡)한 적도 없는 옛 묘역의 소유권이 미

상(未詳)의 이유로 윤씨 일족(尹氏 一族)으로 등재(登載)되기에 이르렀나이다.

생업에 쫓긴 미혹한 후손의 불찰(不察)이기에 더욱 통한(痛恨)할 일이었나이다.

또한 1970년대에는 남북의 군사대치(軍事對峙) 상태라는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과거 왕조의 무신묘역(武臣墓域)에 대한 성역화(聖域化)가 진행되었던 바, 이를 기회(奇貨)로 저들은 문숙공(文肅公) 묘역을 확장정비하면서 담장을 증축하여 만사(晩沙) 할아버님의 영역(靈域)을 막아버리고는 국가기관의 불법에 기인한 원상 복구명령(原狀復舊命)마저 도외시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나이다.

이에 祖父인 휘 원목(遠穆) 과 父인 휘 종익(鍾益)께서 잘못을 바로잡으려 불철주야 진력(盡力)을 다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막중한 대의(大義)를 물려받은 소손(小孫) 역시 하루도 이를 놓을 수 없었사오나, 다만 미약(微弱)한 재주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탄식(歎息)하여 왔나이다.

아! 8대조 휘 정최(廷最) 이래 슬한 유지(有志) 종인(宗人)의 환란(患亂)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렇듯 통분(痛憤)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사오나 어찌 망령(妄靈)되어 뇌동(雷同) 하겠나이까.

인의(仁義)가 아니라 하여 입조(入朝)를 멀리한 채 세진(世塵)에 더럽히지 아니하셨고, 봉당(朋黨)은 옳지 않다 하여 후학으로 하여금 탕평(蕩平)을 공론화하기에 이르셨으며, 영상(領相)임에도 시호(諡號)조차 청(請)하지 말라는 유훈(遺訓)을 남기신 만사(晩沙) 할아버님의 큰 가르침은 오늘에 까지 면연(綿延)히 내려왔나이다.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아니하고, 求하고자 해서 안 될 것은 求하지 아니한다. 를 바로 새기며, 저들의 잘못을 때로 꾸짖어 내지되, 마땅히 매양(每樣) 진중(鎭重)하여 왔나이다.

하오나 아무리 尹門의 잘못을 바로잡기 어렵다 한들 담장에 가로막힌 만사(晩沙) 할아버님의 영역(靈域)을 경원(敬遠)하고 어찌 누대(累代)의 선조를 뵈올 수 있으며, 열선조(列先祖)의 인의(仁義)와 덕행(德行)을 후손에게 가르칠 수 있겠나이까.

더욱이 양문(兩門)의 대립의 연원(淵源)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송봉(崇奉)의 미풍(美風)마저 왜곡(歪曲)되어 세인(世人)에 말에 오르내리는 것은 오늘의 일이나, 사

필귀정(事必歸正)은 아직 때에 이르지 못한 먼 후세(後世)의 일이나이다.

그리하여 불민(不敏)한 소손(小孫)은 양보(讓步)와 화해(和解)로서 양문(兩門)의 분쟁(紛爭)을 종식(終熄)할 것을 발심(發心)하였고, 지난 2005년 7월 윤문(尹門)의 대종회장과의 몇 차례 회동에서 천장(遷葬)을 합의(合意)하기에 이르렀나이다.

이는 양문(兩門)의 합의서(合意書) 서문(序文)에서 표한 바와 같이 오직 누백년간(累百年間) 지속(持續)되어온 양문(兩門)의 분쟁은 조상을 바로 섬기려는 올곧은 신념에 의한 것으로 여하한 세류(世流)에도 이러한 믿음이 폄하(貶下)될 수 없으며, 오랜 다툼이 세인(世人)에게는 자칫 곡해(曲解)될 염려(念慮)가 있을 뿐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첨예(尖銳)한 대립으로 나아갈 것이 분명하여 이를 당대(當代)에 그치고자 대승적(大乘的)인 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 이나이다.

이후 문화재에 관련된 절차 등 몇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 10대손인 찬구(贊求) 부회장의 총괄지휘와 여러 종인의 노력으로 금년 4월에 시작된 천장의 산역(山役)을 마감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양문(兩門)의 화해(和解)가 미래를 향한 진일보(進一步)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어찌 선조의 유택(幽宅)을 지키지 못하고 영면(永眠)을 어지럽힌 소손(小孫)의 불효를 가릴 수 있겠나이까.

이를 발심(發心)하고 실행한 불肖(不肖)한 소손(小孫)이 모든 종인을 대신하여 마땅히 머리 숙여 죄(罪)를 빌겠나이다.

이곳에 모셔진 만사(晩沙) 할아버님을 비롯한 18위의 열선조(列先祖)들께오서는 부디 배복(拜伏)한 불민(不敏)한 후손(後孫)들을 널리 헤아려 살피시고 이상의 고유(告由)와 함께 올리는 맑은 술과 제물(祭物)을 흠향(歆饗)하시옵소서.

2008년 8월 24일  
10대孫 明求 謹告 (10代孫 晶求 代讀)

### < 추고(追告) >

만사공(晩沙公) 할아버님을 비롯한 18위의 열선조(列先祖)들께 추고(追告) 하나이다.

옛 묘역의 산송(山訟) 해결을 평생의 숙원(宿願)으로 삼아 정성(精誠)을 다하여 온 전(前) 대종회장 明求 형께 오서 애통(哀痛)하옵게도 산역(山役)이 마무리 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2008년 5월 28일 오전 7시에 별세(別世) 하였습니다.

부디 선조(先祖)들의 품에서 안식(安息)을 허락(許諾)하시옵소서.

아울러 소제(小弟) 정구(晶求)는 명구(明求) 형에게 평생의 지극(至極)한 효심(孝心)을 대변(代辯)하는 맹자(孟子)의 말씀 한 줄을 올리나이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사람노릇을 할 수 없고, 부모를 따르지 않으면 자식노릇을 할 수 없다

이제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영면(永眠)하시소서.

仁壽府尹公派 宗會長 10代孫 晶求 謹告

묘(侍墓)하시었습니다.

- 이후 1662년 70세로 相公께서 부문동(部問洞)의 정침(正寢)에서 고종(考終)하시자 선대와 같이 相公께서도 함께 모시어졌던 바, 나라에서는 승지(承旨)와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조상(弔喪)과 치제(致祭)하게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1763년까지 옛 묘역은 相公 3대를 비롯하여 다수의 선조가 모셔진 우리 종중의 고유한 선영(先塋)으로 여하한 시비나 다툼도 없었습니다.

⇒ 7면에 계속

## 천장(遷葬)에 관한 경과보고(經過報告)

오늘 이 곳 분수리 선영(先塋)에 영면(永眠)하고 계신 의정부 영의정 만사 상공(議政府 領議政 晚沙 相公) 할아버님과, 相公의 조부(祖父)와 부(父)이신 증의정부 좌찬성 숙천(贈議政府 左贊成 肅川) 할아버님· 증의정부 영의정 감역(贈議政府 領議政 監役) 할아버님 그 외에 之(字)泓(字) 할아버님을 비롯한 모두 18위의 분묘를 우측의 옛 묘역에서 이 곳 새로운 묘역으로 천장

(遷葬)하여 모시고 고유제(告由祭)에 앞서 그 동안의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합니다.

- 이 곳 분수원 우측 언덕의 옛 선영(先塋)은 1614년 相公 之(字)源(字) 할아버님이 22세 되던 해에 相公의 조부이신 숙천공(肅川公)께서 서거하시자 처음으로 공을 안장(安葬)하여 모신 곳으로서,

- 1630년 相公이 38세 되던 해에는 相公께서 북관(北關)의 암행어사(暗行御史)를 마치고 귀경하던 중, 父이신 감역공(監役公)의 갑작스런 부음(訃音)을 접하자 여러 날을 달려와 공을 모시고는 3년을 직접 시

- 그러나 1763년 그 해에 이르러, 실전(失傳)한 문숙공(文肅公)의 분묘(墳墓)를 찾는다. 사유로 파평윤씨문중(坡平尹氏門中)에 의하여 相公 영역(靈域)의 돈대(墩臺) 아래가 파헤쳐지는 황망(慌忙)한 지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이렇게 발원(發源)한 양 종중의 산송(山訟)은 영조(英祖) 임금께서 친히 다툼을 금(禁)하고, 각기 묘를 수호(守護)하여 서로 침범(侵犯)하지 말라. 하였으나, 송조(崇祖)의 발현(發顯)인 분묘수호(墳墓守護)를 목숨보다 중히 여긴 양 종중은 이듬해에 이르기까지 상소(上疏)로 이를 다투었던 것입니다.
- 그리고 1910년대말 일제(日帝)에 의한 임야사정(林野査定)에 이르러는 생업(生業)에 쫓긴 미육한 후손(後孫)으로 말미암아 매도(賣渡)한 적도 없는 오랜 종산(宗山)인 이곳의 소유권이 미상(未詳)의 이유로서 윤씨 일족(尹氏一族)으로 등재(登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또한 1960년대부터 근간에 이르기까지는 相公의 묘역

- 앞을 윤씨문중(尹氏門中)에서 불법 증축한 곡장(曲墻)이 가로막아 양 문중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 이에 故 明(字)求(字) 대종회장께서는 兩宗中의 오랜 다툼이 조상을 바로 섬기려는 올곧은 신념(信念)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세인에게는 자칫 곡해(曲解)될 염려(念慮)가 있으며 후대(後代)에 이르기까지 첨예(尖銳)한 대립으로 나아갈 것을 우려(憂慮)하여 이를 당대(當代)에 그치고자 화해결정(和解決定)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 2005년 7월 兩宗中의 대종회장 간의 합의와 동년 8월 합의서(合意書) 체결로서 숙천공(肅川公)과 감역공(監役公) 그리고 만사공(晩沙公)을 포함한 18위의 분묘 일체를 좌측 언덕의 묘역으로 천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 한편 천장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원형보존(文化財 原形 保全)이라는 학계의 고견(高見)을 천장사업에 반영하고자 약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2007년 10월과

- 동년 11월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와 중앙문화재위원회로부터 천장 계획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 이후 금년 4월 21일부터 경기도박물관 의 주관 아래 문화재 발굴조사 가 약 40여일간 선행되어 만사공(晩沙公)의 묘지(墓誌)를 비롯한 다수의 유물(遺物)이 수습(收拾)된 바 있으며, 발굴조사가 완료된 순서대로 천장을 진행하여 지난 6월말 천장과 기본적인 묘역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그 간의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끝으로 산송(山訟) 해결에 진력(盡力)을 다하셨던 故 明(字)求(字) 대종회장님 그리고 재정 일체(財政 一切)를 부담해 주신 가족 여러분에게 후손의 일원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천장사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경기도청, 파주시청과 문화재위원회 그리고 경기도박물관의 관계하신 분들 및 종인(宗人) 여러분에게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仁壽府尹公派宗會 副會長 沈贊求

기행문

해병의 나라 - 백령도(白翎島)



理事 沈晟求

백령도하면 불안감이 앞서기도 하지만 그러기에 가보고 싶어지는 호기심도 생긴다. 벌써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이다. 인천에서 중등교장단 회의가 있었다.

동료 모교장과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백령도에 다녀오기로 하고 2~3주전부터 주선하여 예약을 했다. 출항시간은 10시경이었던가.

여름방학이 시작된 다음이니까 한여름이다. 그런데 선착장 사무실에 도착하니 안개가 자욱하여 수면도 보이지 않는다. 안개가 개이는 대로 출항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신비의 땅에 대한 호기심은 더해가고 시선은 계속 바다 위로 던져진다. 정오가 되어도 안개는 걷히지 않고 군에서 통제하는 출항소식은 감감하다. 정오가 이미 넘은 다음이다. 오늘은 출항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승선료만 돌려 받고 말았다. 다음해 초여름 이번에는 동부인해서 가기로 하고 다시 인천항으로 갔다. 역시 안개 때문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가까운 덕적도에서 일박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말았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덕적도를 백령도로 착각할 때도 있다. 이번이 세 번째의 도전이다. 쾌속정을 타고 바다를 가르며 탁트인 시아의 바다, 갈매기, 바다로 가라앉은 하늘이 파도로 일렁인다는 구경도 못했던 오지 총복 태생의 나에겐 수면이 일렁이는 구름만큼이나 낭만도 출렁인다. 유?무인도인지 구별도 안 되는 먼데 섬들을 바라보면서 별천지라도 나타날 것 같은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드디어 백령도 선착장에 나서니 영업용 차들이 마중이나 나온 것처럼 반기며 서로 차에 오르라고 내 손님이니 네 손님이니 하면서 분주하다. 일행과 함께 봉고차를 빌렸다. 안내원은 없었지만 운전기사가 능숙한 말솜씨로 섬을 소개한다. 서해의 최북단, 이 섬은 6.25당시 북한의 피난민과 이 섬 주민들의 자발적인 결사대의 활약이

켰다고 한다. 토지는 외지인에게는 매매하지 못하고 이 섬 주민들끼리만 매매가 가능하다. 농사도 1년 지어 3년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생산이 가능한 풍요로운 섬이란다. 게다가 까나리아젓은 우리나라에서 일등급으로 정평이 있다고 한다. 지나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까나리아젓통은 그 넓은 공간마다 즐비하다. 수십 수백통의 까나리아젓통을 이곳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풍경이다. 페비닐 재생포인 붉은 것 같 통들은 모두 모자(뚜껑)를 쓰고 그 위에는 등글넙적한 돌들이 얹혀있다. 아무래도 바닷가이니까 바람이 있겠지 하는 짐작이었다.



몇 집 안 되는 해변 마을 두무진이다. 해상관광이란 명목으로 배를 타고 서해의 해금강 이라고 하는 돌섬? 바위섬? 을 한 바퀴 돌아본다. 관동팔경의 총석정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것은 우뚝 솟았고, 둥근 종류석의 탑도 같고, 그림도 같고, 어떤 것은 동물의 화신인듯한 것도 있다. 검은 도에서도 말했듯이 이곳에서도 코끼리 바위는 빠지지 않는다. 한 마디로 줄이자면 그저 기기묘묘한 모양들이 제각기 개성을 연출하고 있다고 할까, 장관이라고나 할까, 마침 이곳에서는 날씨가 맑아 장산곶도 멀리로 보인다. 몽금포 타령이라도 한 마당 부르고 싶어지지만 마음뿐이었다. 장산곶, 인당수, 심청이는 비록 가공인물이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남겨준 그 효행이야 수로도 양으로도 계산이 불가하지 않은가. 나는 부모님 덕택으로 한글을 남보다 어린 나이에 깨친 탓으로 겨울이면 사랑방에서는 바깥노인들 안방에서는 안노인들의 부름으로 심청전, 춘향전, 조웅전, 투꺽전 등

고담소설을 수없이 읽어드렸던 관계로 제일 빈도가 많았던 심청전, 춘향전의 대강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밖에도 어느 외관의 애첩 애기봉(愛妓峯)이며, 백령도의 전설이며, 심청이의 좀더 구체적인 환생 같은 것은 지면관계로 언급할 수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

언젠가 여름 정도리 해수욕장의 몽돌 해변도 처음 보는 신기함이었는데, 이번에 여기서는 속칭 콩돌 해변이다. 콩알만큼 작지만 돌로 뒤덮인 해안이다. 한알한알이 진주나 수정을 등글등글하게 다듬어 흠여 놓은 것 같다. 이것으로 반지를 만들면 전 세계 여자들이 다 끼고도 남을 터인데 하는 생각이 해본다. 밟을 때마다 콩알만한 돌들이 서로 갈리는 소리와 함께 밟히는 감각이 또 다르다. 장난꾸러기 시절이라면 시간을 잊고 던지고, 구르고, 헤매고, 뛰고 싶은 충동을 참으면서 간이 포장마차에서 굴을 씹으며 한잔 할 수밖에 또 하나 신비로운 것은 천연비행장이다. 세계에서 나폴리와 이곳, 두 곳 밖에 없다는 구조토사장(陸藻土沙場)이다. 썰물로 물이 빠지면 콘크리트 바닥 같아서 자동차는 물론 비행장으로도 손색이 없기에 유사시에는 비행장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일행들과 걸어 보는데 승용차 몇 대가 서슴없이 포장도로를 달리듯 지나간다. 차가 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이니 일행들도 모두 나와 같은 자세들이다. 신기하다는 표정들이다.

다음날 아침이다. 바다는 또 안개로 자욱하다. 안개가 걷히는 대로 출항한다던 배는 오늘도 또 뜨지 못한다나, 도리 없이 도보로 이곳저곳을 돌며 오가는 물결에 밀려나온 다시마도 건지고, 낚시도 던져보며 시간을 보냈다. 하는 것 없이 하루를 보냈지만 하루 세끼는 먹어야 한다. 노을은 검은 구름으로 바뀌는 즈음에 순댓국집으로 들어섰다. 1박 2일의 일정이었는데 여비도 대롱대롱이다. 흔히 보아왔던 돼지머릿기에 순댓국이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순댓국의 옛 맛을 여기서 먹어본다. 물론 역겨운 냄새도 없었지만, 서울이나 타지에서 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 맛에 일행들도 감탄의 연발이다. 솜씨일까, 재료일까? 소주야 의례히 따라오는 것, 참이슬이다. 다른 것으로 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 섬에서

는 참이슬 외에는 막걸리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이슬을 마시지 않겠다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마도 교직에 봉직했던 분들일 게다. 자칭 거물인 양하는 정치가? 어느 분이 이 회사의 명예이사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에 따라서는 안 마실지언정 이 술만은 들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하루를 빈둥거렸는데 다음날도 출항불가다. 역시 해상의 안개 때문이다. 어떤 일행은 바둑을 또 누구는 화투로, 마작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마침 나와 같이 그런 오락에는 뜻을 두지 않았던 S교장과 한 시간 남짓한 소재지 풍경이나 보려고 떠났다. 섬나라 작은 면소재지인데도 농협, 우체국 등 각 기관도 빠지지 않았고, 오락 문화시설도 빠진 것이라고는 없는 것 같다. 노래방, 머리방 등등 말이다.

내일의 쾌청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여유시간으로 이곳의 자랑인 심청이의 테이프, 각종문화홍보자료도 구하고 생각보다 친절한 해병대의 질자로 속소로 오기도 했다. 1박 2일이 3박 4일이 되어버렸다. 나로서는 갈 때도 어려웠던 백령도가 올 때도 역시 어렵기만 했다. 이렇게.

- 끝 -

**별 씹음**

시조 시인 심성보  
부경대학교수 공학박사

꽃샘추위 오일장터  
흑염소 네댓 마리  
꽂다꽂다 별 씹음  
팔리는 줄 모른채  
주인은 흥정에 떠전  
멀뚱멀뚱 철부지들.  
저녁담 싸락눈발  
불불 떨다 남은 한 냄  
돌멩이 푹푹 차고  
돌아온 텅 빈 헛간  
별 씹음 그리운 별 씹음  
글썽글썽 감장눈.

人事

- 동섭 : 중소기업청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장
- 효무 : EBS 제작본부 시사교양팀장
- 상렬 : 광운대학교 교수학습센터장
- 相洛 : 평화방송 기획관리국 부국장
- 정미 : 중앙일보 데일리즘 편집국 부국장
- 재명 : 삼성의료원 경영지원실장
- 창래 : YTN 마케팅국 사업팀장
- 기욱 : 애플투자증권 영업지원팀장
- 동섭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부근무
- 재홍 : 서울시 물 재생계획과 4급승진
- 장섭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정책관 국장급
- 동섭 :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 재홍 : 서울시 도봉구 지방서기관
- 권용 : 대한광업진흥공사 해외금속 2팀장
- 준성 : 연세의료원 치과병원 중앙기공실장
- 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민철 : 안동대학교 일반직
- 송용 : 한림대 정보전산원장
- 심섭 : 수출입은행 신성장 산업금융실장
- 영섭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여문화재연구소장
- 수만 : 홍익대 취업상담지원센터 소장
- 재우 : 단국대 국제문화교류처장
- 재연 : 대불대 기획처장
- 洋燮 : 흥국쌍용화재 상무 법인영업2 본부장
- 斗輔 : 국토해양부 교통정보팀장

誠金 感謝합니다

- 理事會費 -

宜洛	300,000	2008	會長
相翰	50,000	2008	쌍문동

- 宗報贊助 -

대구 개인택시 심씨친목회	200,000	영주
재동 개인택시 심씨친목회장	50,000	평택
상호	30,000	수원
재봉	50,000	충주
희보	30,000	인천
종택	30,000	동국대학교
규주	30,000	영덕
익섭	50,000	가평
토남	100,000	대구
영식	50,000	양촌면
沈宜	100,000	단양
경섭	76,000	慶州
만복	30,000	
張植	50,000	

- 특별성금 -

靑松會館竣工	학길	200,000	신림2동
--------	----	---------	------

誤字訂正

중보72호  
 • 6면 하단의 詩 題目: 관악산 해돋이를 **고요한** 아침바다로 訂正합니다.

祝 독립유공자 포상 祝  
 건국훈장 애족장  
 심 항 기  
 대통령 표창  
 심 원 섭



코스모스꽃 길을  
 거닐며

여름은 가고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  
 연약한 화심  
 흔들어놓고 떠나간 추풍(秋風)이여  
 한 길 가늘어선 춤추는 고운 얼굴  
 화사한 햇살  
 한껏 끌어안고 즐기는 한 낮  
 길손 설레게 하는 피안의 저쪽에서  
 쓰러질 듯  
 일어서서 미소지으며  
 아름다운 지평 위  
 열정으로 남긴 여운  
 코스모스 꽃물결에 가을빛이 맴돈다.

靑報會 등산모임



광교산 계곡 장수촌 에서

9회 靑報會등산 겸 단합모임을 가졌다. 용인 성북동 광교산 계곡에 있는 장수촌(오리전문집)에 오전10시에 18명이 도착하여 일정을 논의한 결과 장년팀과 노장팀으로 나누어 등산을 하기로 하였다. 1시간을 오르다보니 무더운 북풍이라 노장팀은 힘에 겨워 원위치로 하산하고, 장년팀은 산행을 계속하여 광교산 중턱코스 2시간에 걸쳐 산행하고 하산하니 기다리고 있던 노장팀의 환영을 받으며 다시 합류하였다. 장수촌 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토종오리찜에 맥주와 소주로 더위를 식하며 즐겁게 점심식사를 하였다. 2차로 계곡으로 자리를 옮겨 맑고 차디찬 계곡 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고, 한편에서는 단풍그림공부도 하고 술잔을 주고 받으며 즐거운 청보회의 단합모임을 하면서 앞으로 靑報會와 등산모임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였다.

山下길에 성북동에 살고 있는 前會長 求亨氏가 우리 집으로 모셨으면 좋겠으나 사정이 있어서 해장국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제의하여 모두가 즐겁게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다음 달의 10회 등산행사는 광명시에 있는 구름산으로 정한 후 오늘의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2008년 8월 3일

▶참석자: 相直 相華 相厚 仁求 洪燮 百燮 忠燮 求亨 載求 正燮 容圭 三圭 載澈 載德 載烈 鍾赫 種福 昌輔

퇴직교원 정부포상

- ▷ 靑條勤政勳章 ◁
  - 鉉鎬 : 동양공업전문대
  - 貞姬 : 사창초등학교 교사
  - 平燮 : 소호초등학교 교사
  - 富子 : 동아대 교수
- ▷ 紅條勤政勳章 ◁
  - 惠淑 : 천안도솔 유치원장
  - 英旭 : 중리초등학교 교감
  - 甲順 : 대구월서초등학교 교사
  - 秀雄 : 성일중학교 교사
  - 完求 : 운천초등학교 교감
- ▷ 綠條勤政勳章 ◁
  - 載植 : 경신중학교 교감
  - 賢淑 : 서울 당서초등학교 교감
  - 在九 : 휘경공고 교감
  - 鍾文 : 강릉제일고등학교 교사
- ▷ 玉條勤政勳章 ◁
  - 潤子 : 양주 덕산초등학교 교감
  - 在妊 : 흥도초등학교 교감
  - 永燮 : 수택초등학교 교감
  - 桂順 : 사과초등학교 교장
  - 命用 : 서울 안평초등학교 교감
  - 錦子 : 서울 광남초등학교 교감
- ▷ 勤政褒章 ◁
  - 在千 : 일신여상 교사
  - 載龜 : 리라컴퓨터고 교사
  - 華鎭 : 순심고등학교 교감
  - 香順 : 구성중학교 교사
  - 銀順 : 계룡고등학교 교사

5처산소 유사 연락처

세	관 직	소재	유사	전화번호
시 조	문림랑공	청 송	相燾	010-6889-7733
			宜亮	016-9225-3618
2 세조	합문지후공	함 열	瑢燮	011-676-0892
3 세조	청화부원군	안 성	光澤	011-732-5768
4 세조	청성백	연 천	良燮	011-728-2104
4세조비	청주송씨	청 주	成輔	019-480-9994
靑 松	청송심씨 찬경회관			054-874-3400
	館長	載洪		018-505-7611
淸 州	청 주 회 관			043-286-7857

송 금 안 내

찬조금 또는 종보회비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청송심씨대중회)  
 농 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중회)  
 2008년 6월 5일자로 신규 개설

靑 송 심 씨 대 중 회  
 전화 : (02)2267-7857